

<별지 제2호 서식>

징계 청원서

청 원 인	성 명		소 속 시·도당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E-mail)

청원 내용

1. 피청원인

- 성명 : 송영길
- 현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해당 발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2. 청원요지 : 피청원인의 징계혐의(해당행위)

- 피청원인은 선거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하여, 중앙당의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공지에 반하는 해당행위를 하였음.
- 세부 내용은 별지 2. 청원요지 참조

3.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

-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4호, 당헌 제14조 제2항, 윤리규범 제3조·제4조·제5조,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위반에 해당함.
- 세부 내용은 별지 3.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 참조

※ 청원인이 허위의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위조·변조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징계를 청원하는 경우, 당규 제7호 제14조(징계사유) 및 제30조(무고에 대한 조치)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26 년 6 월 일

신청자 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 귀중

별지 2. 청원요지

피청원인의 징계혐의, 해당행위

본 청원인은 피청원인 송영길에 대하여, 선거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행위가 중앙당의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공지에 반하는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판단하여 징계를 청원한다.

피청원인 송영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이며, 해당 발언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다. 피청원인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도 하므로, 일반 당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당헌·당규 준수 의무, 당 추천 후보 지원 의무, 선거기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중앙당은 2026년 5월 10일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공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평당원,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후보자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피청원인은 선거기간 중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관련 영상 및 보도에 따르면, 피청원인은 김관영 후보에 대해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 “뛰어난 사람”, “어차피 민주당 사람”이라는 취지로 평가하고, 민주당이 전북도지사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다. 피청원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다. 공천 후보자는 당의 공천질서와 선거기간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준수 의무자이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청원인이 다른 선거에서 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것은, 당의 공천 권위와 후보 지원 체계를 훼손한 행위이다.

특히 김관영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을 김관영TV 영상으로 게시하여 선거홍보에 활용하였다. 이는 피청원인의 발언이 단순한 논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 측에 정치적 정당성과 홍보 효과를 제공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청원인의 행위는 중앙당의 해당행위 엄단 방침에 반하고, 당이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해야 할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민주당 공식 후보의 선거운동을 약화시키고 경쟁 무소속 후보에게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 중대한 해당행위이다.

이에 청원인은 피청원인 송영길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등 중징계를 요청한다.

별지 3.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

피청원인 송영길의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윤리규범 및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 위반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는 당원에게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청원인은 선거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는 중앙당의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공지, 당의 공천질서, 당의 공식 후보 지원 방침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청원인의 행위는 당헌·당규 준수 및 당론·당명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당헌 제6조 제2항 제3호 위반

당헌 제6조 제2항 제3호는 당원에게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후보는 이원택 후보였고,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였다. 그럼에도 피청원인은 김관영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하였다.

피청원인은 해당 발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으므로, 당 추천 후보 지원 의무를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청원인의 행위는 당헌 제6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

3. 당헌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윤리규범 위반

당헌 제6조 제2항 제4호는 당원에게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윤리규범 제3조는 당원이 강령·정강정책과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리규범 제4조 제2항은 당원이 당원 간 상호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리규범 제5조 제1항은 당원이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피청원인은 선거기간 중 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옹호하여, 당헌·당규 준수 의무, 당원 상호협력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4. 당헌 제14조 제2항 해당

당헌 제14조 제2항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피청원인은 당 추천 후보 지원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기간 중 경쟁 무소속 후보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당의 공천질서와 선거기강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당헌 제14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5.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반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당은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공문을 통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피청원인의 행위는 이 중앙당 지시와 결정에 반한다.

6.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위반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피청원인은 윤리규범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당규 제7호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7.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위반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제6호는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제7호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기간 중 당의 핵심 당무는 당이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과 지원이다. 피청원인의 발언은 민주당 공식 후보에 대한 당력 집중을 약화시키고, 당원과 지지자에게 혼선을 초래했으며, 경쟁 무소속 후보에게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청원인의 행위는 당무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이자 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

8. 당헌 제84조 및 공천불복 관련 규정에 관한 의견

피청원인이 직접 공천불복을 한 당사자는 아니므로, 당헌 제84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1항 제8호를 피청원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피청원인의 발언은 공천불복 또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후보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고, 당의 공천불복 무관용 원칙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피청원인의 행위가 당의 공천질서와 선거기강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9. 징계 수위에 관한 의견

본 사안은 경고 수준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피청원인은 해당 발언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보였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또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일반 당원보다 훨씬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중앙당이 이미 해당행위 엄단 방침을 공지했음에도, 피청원인은 선거기간 중 민주당 공식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선거에서 공천불복 후보를 옹호하거나 당의 공식 후보를 혼드는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청원인은 피청원인 송영길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등 중징계를 요청한다. 사안의 중대성, 피청원인의 전직 당대표 및 민주당 공천 후보자라는 지위, 중앙당의 사전 경고 존재, 경쟁 무소속 후보 측이 해당 발언을 선거홍보에 활용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엄정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

별지 4. 첨부 자료

1.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공문 사본



수신자 시·도당위원장

참 조 시·도당 사무처장

제 목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 엄단의 건

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시·도당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당은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해당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6.3 공정선거 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 선거 기간 중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무소속 혹은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평당원,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징계할 것입니다.

4. 무소속·타당 후보가 당선 후 더불어민주당 입당 및 복당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중앙당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특히, 공천 불복으로 탈당한 자, 징계 중 탈당자에 대해서는 당헌 제4조(자격) 3항, 당규 제2호 제11조(복당) 6항에 의거, 영구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5. 또한 특정 정당과의 합당으로 인한 복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세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합당 시에도 공천불복자, 징계자의 우회 입당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6. 이에 각 시·도당에서는 선거 기간 중 철저한 감시를 통해 해당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중앙당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담당 김 경 미 국장 박 영 중 사무총장 조 승 래
문서번호 조직국 26-072호 시행 2026. 05. 10. 접수
우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민주당사 / www.theminjoo.kr
전화 (02)2630-7047 전송 (02)2630-0020

2. 김관영TV 게시 영상 자료

- 제목: 「송영길 전 대표, “김관영은 이재명이 선택한 민주당 사람”」

- 링크: <http://bit.ly/4fruw3j> , <https://www.youtube.com/watch?v=POMPyUmIdzQ>



송영길 전 대표, "김관영은 이재명이 선택한 민주당 사람" (2026. 5. 30. 스피스 인터뷰)

김관영TV
구독자 7,693천명

구독

659

공유

질문하기

저장

모두

정치 뉴스

관련 콘텐츠

추천

최근

[6.3 지방선거] 불꽃 토론 중

3. JTBC 뉴스 쇼츠 자료

- 링크: <https://bit.ly/4vxZ33Z> , <https://news.jtbc.co.kr/shorts/ND10753428>

The image is a screenshot of a mobile video player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back arrow on the left and a volume icon on the right. The main content area has a dark green background. The title "송영길" (Song Young-gil) is written in large white font, followed by the subtitle "“김관영, 민주당 사람”" (Kim Gwan-yeong, Democrat person) in a light green font. Below this is a video thumbnail showing two men in blue vests. The man on the left is Kim Gwan-yeong, and the man on the right is Song Young-gil. Text overlays on the thumbnail include "이기학라이브" (Lee Gihak Live), "거침없는 흐름, 상성환 전망" (Unwavering flow, Sang Seong-hwan outlook), "지난 5월 30일" (May 30th), and "“김관영도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 (Kim Gwan-yeong is also a person chosen by the president). Below the thumbnail, the text "이기학라이브" is displayed in a white box, followed by "평일 오후 5시 생방송" (Live broadcast every weekday at 5 PM). On the right side of the player, there are icons for "댓글 보기" (View comments), "공유하기" (Share), and "좋아요" (Like). At the bottom left, the text "송영길 “김관영, 민주당 사람”" is visible.

4. 전북타임즈 기사

- 제목: 「송영길 “김관영 어차피 민주당 사람…전북도민 심판 겹허히 받아들여야”」
- 링크: <https://bit.ly/4e5ev0y> , <https://www.jeonbuktimes.co.kr/m/view.jsp?ncd=224892>



송영길 “김관영 어차피 민주당 사람...전북도민 심판 겹허히 받아들여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스피크스에 출연, “전북도민들은 민주당의 김관영 지사 제명결정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심판과 평가는 겹허하게 도민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격전지에 대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북도지사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힘을 모아줘야 할 곳은 잘못하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평택을 선거구”라며 아갈이 말했다.

그는 “김관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뛰어난 사람이고, 어차피 민주당 사람”이라면서 “비록 실수는 했지만, 이원택 후보의 실수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호남민중의 분노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송 전 대표는 “전북에는 김관영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원택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며 “두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왜 거기서 싸움을 하는 것이냐”고 충고했다.

송 전 대표는 2주 전에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관영 지사가 현직 도지사고 더구나 지지율 1등인데 하루 만에 바로 제명을 해버린다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며 소신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물론 잘못했지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많다. 이분이 내란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1시간 이내에 내란이 불법이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거를 내란 동조범이라고 억지로 몰아가지고 고발이 돼서 이번에 무형의 처분을 받은 거 아닌가?”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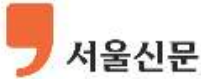
5. 서울신문 기사

- 제목: 「“김관영도 민주당 사람” 송영길 발언에 이원택 측 반발...與 “당 돌아가는 사정 잘 몰라”」

- 링크: <https://bit.ly/4uUXvRV>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5/31/20260531500082>

26. 6. 7. 오전 10:02

“김관영도 민주당 사람” 송영길 발언에 이원택 측 반발...與 “당 돌아가는 사정 잘 몰라” 서울신문



서울도보브리핑

제9회 지방선거 정치 사회 경제 국제 정책·자치 문화 기획·연재 오피니언

정치

“김관영도 민주당 사람” 송영길 발언에 이원택 측 반발...與 “당 돌아가는 사



강유혁 기자

입력 2026-05-31 17:33 수정 2026-05-31 17:33

구급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원택 선대위 “심각한 해당행위”
김관영 선대위 “전북도민의 마음”
조승래 “과정 확인하고 발언해야”



발언하는 송영길 후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미추홀구 옛 시민회관 지하에서 열린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출정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6·3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전북지사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 캠프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즉각 반발한 반면, 김 후보 캠프는 “전북 도민의 마음”이라며 송 전 대표의 발언을 옹호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당이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 후보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관영 지사 재명 결정 과정이 전북도민의 분노를 불러왔다”며 “심판과 평가는 정치권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오미 헤드미 TV사운드 박스팩, 무선 블루투스 5.0, 오디오 블루투스 음악 재생, PC극장 TV무선 사운드, 30W 75,900,000 - Allpress (Opposites)

다음 문서 보기 >

뛰어나기 쉽고 결코 미조운 사람"이라면서 "물

많이 본 뉴스

1 "술 담배 양원 안

2 "구조 못 알았던 노

3 강릉 해안 여성들

4 "잠실 시 보내달라

5 김규리 주 스포츠



광고문의